

大學人으로서의 삶의 秀越性 追求

李 鐵 柱
(延世大 物理學科)

우리나라의 諸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知性的 삶의 秀越性을 성취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과 나아가 인류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韓國인의 天賦的인 才能을 개발시키는 교육, 특히 大學教育의 秀越性을 구현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思料된다.

1. 삶의 秀越性

人間의 삶에는 단순히 산다는 ‘本能的인 삶’과 다른 한 면은 知性人으로서 깊이 있고 價値 있게 사는 ‘知性的인 삶’의 兩面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는 프랑스의 유명한 物理學者이며 宗教思想家인 파스칼(Pascal Blaise, 1623~1662)의 “人間은 ‘갈대’와 같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想起해 보면 그 양면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갈대와 같은 ‘本能的인 삶에 대한 秀越性의 追求 能力’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動物과 植物, 즉 모든 生命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卓越하다는 사실을 다음의 例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動物界의 치타는 時速 100km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가 하면 세계 제일의 장거리 飛行者인 제비갈매기란 새는 北極에서 南極까지 16,000km나 되는 장거리를 매년 往復 飛翔을 하며

개는 1 리터의 空氣 중에 4×10^{-16} 리터(4兆분의 1 또는 2萬분의 1 리터)인 極微量의 암모니아 가스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超高感度の 嗅覺을 가지고 있으며, 박쥐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째깍한 밤중에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탁월한 能力을 가지고 있다.

한편 植物界에서 한 가지 例만 들어 보자면 4개월간 成長한 귀리(燕麥)의 작고 큰 모든 뿌리의 수를 다 합하면 143억 개나 되며 그 전체의 길이는 무려 620km나 되니 이 거리는 서울에서 釜山까지 갔다가 다시 大邱까지 되돌아 오는 거리에 해당된다. 이 사실은 나약한 한 뿌리의 一年草가 어떠한 最惡의 환경 속에서도 그 生을 維持하고 繁殖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天賦的인 삶의 秀越性을 보여준 좋은 예다.

한편 萬物의 靈長다운 人間의 全身에는 全世界 人口의 6,000 배나 되는 30兆 개의 細胞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精神作用을 관장하는 腦의 神經細胞는 무려 140억 개나 있어서 어떠한 環境 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生物學的 바탕을

구비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生物學者 Bichat는 “삶은 죽음에 對抗하는 힘의 總和이다”라고 삶의 秀越性を 雄辨으로 表現한 바 있다.

2. 두 가지 文化傳統의 所産

우리의 傳統의인 概念으로의 생각하는 갈대는 知性的 삶의 秀越性を 成就해 보려고 온갖 힘을 다 發揮해 온 ‘선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지칭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야 할 具備 조건으로 ‘身言善判’이란 資質이 있다. 그 첫번째의 ‘身’이란 健康한 신체에 健全한 정신이 깃든다는 格음과도 같이 그 身에서 끈질긴 努力을 할 수 있는 體力은 물론 건전한 思考力에 대한 信賴度까지 없을 수 없다. 두번째의 ‘言’에서는 깊은 思考力과 論理性은 물론 신중한 言辨도 찾아볼 수 있다. 세번째의 ‘善’에서는 學識과 才能이 넘쳐 흐르는 文筆은 물론 글씨에서 그의 性格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의 ‘判’에서는 그의 記憶力과 蓄積된 知識을 바탕으로 深思熟考 후 分析 綜合하여 賢明한 判斷을 내릴 수 있는 判斷力과 批判的 認識力의 수준을 알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근자에 나의 弟子가 美國 國立科學研究所에 就職을 하려 하니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대하여 그의 素質을 評價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創意力(creativity), 둘째로 發明 考案의 才能(ingenuity), 셋째로 信賴性(reliability), 넷째로 責任感(responsibility) 등이 있는데 이 資質들은 自然을 理解하고 支配하며 나아가서는 民生의 利用厚生에 이용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려는 데에 필요한 또 다른 知的 秀越性的의 具備條件인 것이다.

前者는 韓國 전래의 佛敎와 儒敎 등의 人本主義의인 영향을 받아 人間의 倫理道德的인 면을 바탕으로 價値中心의 文化傳統(value centered cultural tradition) 하에서 知性的 삶의 秀越性を 추구하고 성취해 보려고 하는 데 비해서, 後者는 自然을 研究對象으로 하여 客觀的인 면서도 實證的인 科學的 探求精神과 技術을 바탕으로 한 物質中心의 文化傳統(material centered

cultural tradition) 하에서 非人本主義的인 秀越性を 추구하여 성취해 보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대조적인 두 가지 文化的 傳統의 영향의 強弱은 시대에 따라 社會經濟的 요청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현재와 같은 科學技術 문명 시대에서 價値中心의 문화 전통은 매우 약해져 가고 오직 物質中心의 문화 전통만이 상대적으로 일방적인 강세를 보이는 과거와는 逆轉된 문화 전통의 변질을 가져 오는 一大 革新的인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미래 사회에서는 이 跛行的인 경향이 더욱더 현저하게 나타날 明白한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社會的 趨勢下에서 文化創造와 傳達의 主導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大學에 돌담고 있는 大學人으로서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방향에서 ‘大學의 秀越性’을 구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야말로 당면한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3. 轉換點에서 본 韓國의 位置

이와 같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을 경우에 先行되어야 할 일은 우선 韓國의 大學이 世界의 大學 속에서 어떠한 位置에 놓여 있는가 그 現在의 座標를 확인한 후에 앞으로 다가올 未來의 바람직한 大學의 座標와 目標를 模索하여 설정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같아 우선 우리나라의 몇 가지 輿件과 아울러 大學의 각종 요소를 巨視的 見地에서 國際的 比較를 해 보았다(〈표 1〉 참조).

〈표 1〉 각국의 國土, 人口 및 1인당 GNP

구	분	국토 면적 (10 ² km ²)	인구 (4×10 ⁷)	1인당 GNP (2×10 ² \$)
한	국	1	1	1
일	본	4	3	6
영	국	2.5	1.4	4
서	독	2.5	1.5	5
프	랑	5.5	1.3	4
미	국	100	6	8

자료: The World Almanac, Handbook of Facts, (1984).

이 地球 表面 面積의 70%는 海洋인 데 비해서 陸地는 그 面積의 30%를 차지한다. 韓國의 국토 面積은 그것의 0.1%에 해당하는 10만 km²를 占有하고 있다. 이것을 1로 잡을 때 그 100배나 되는 美國을 제외하면 日本, 英國, 西獨, 프랑스와의 比는 4, 2.5, 2.5, 5.5로서 이 倍數는 비슷한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 만약에 統一이 되면 全國土의 面積은 22만 km²가 되니 英國, 西獨과는 비슷하게 될 것이다.

人口面에서 보면 韓國의 4,000만 명의 인구를 1로 잡을 때 그 6배인 美國을 제외하면 기타 日本, 英國, 西獨, 프랑스와는 각각 3, 1.4, 1.5, 1.3배로서 역시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

韓國의 出產率은 1.5%로 增加하는 데 비해서 先進 諸國의 그것은 0.5%로 減少 一路에 있으므로 서기 2000년에 가서 韓國의 인구가 5,000만 명이 되면 그들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 人口面에서 반드시 考慮되어야 할 점으로 人口 密度面에서 보면 美國과 프랑스의 경우는 24명/km² 정도로 매우 過疎하며 日本, 英國, 西獨의 경우는 60~70명/km² 정도에 불과한 데 비해서 韓國의 경우는 세 자리 수인 400명/km²이 들끓게 되고 2001년이 되면 1km²당 500명이라는 世界에서도 가장 큰 超過密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에는 1인당 國民所得의 비교인데 현재 韓國의 그것은 약 2,000\$로 그것을 1로 잡을 때 先進 諸國의 그것은 4, 5, 6배 정도로 한 자리 수의 倍數에 불과하다. 어떤 未來學者는 21세기에는 英國과도 비슷해질 것이라고 매우 고무적인 豫言마저 하고 있을 정도다.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매우 狹小하고 天然資源마저 빈곤한 국토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生活의 質的 向上을 꾀하여 삶의 秀越性을 성취시킬 唯一한 方法은 오직 그 막대한 良質의 人力資源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여 '教育의 秀越性'을 구현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技術과 社會變革(Technology and Social Change)」(A New York Times Book, 1972)의 저자인 오그번(W.F. Ogburn)은 그 책 속에서 人間의 삶의 秀越性은 人口, 天然資源, 發明 및 社會組織의 函數라고 말한 바 있다.

첫번째로 人口問題에서 中共의 한 農家は 평균 4에이커(약 4,900坪)의 土地를 소유하고 있어서 생활 수준은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科學과 技術의 발전 없이 人口만 증가한다면 農家當 收入은 감소할 것이라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이탈리아에서는 兩大戰後 人口가 증가하였어도 技術의 발달과 經濟組織의 발전으로 1인당 國民所得은 증가하였다고 한다.

두번째로 天然資源은 產業의 原資材로서 또한 機械的 動力源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언필경 韓國은 資源 貧國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없는 資源도 많지만 있는 資源도 많다. 가령 鈾소, 텅스텐, 티타늄 등도 많은데 精製할 기술 수준이 낮고 또한 경제해 보려는 의욕도 부족하여 그 귀중한 原資材를 現값으로 수출하고 外國에서 경제되어 막대한 附加價値가 첨부된 것을 金값으로 逆輸入하는 어리석은 짓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發明의 重要性을 논했는데 美國에서 100년 전 시간당 賃金이 27센트였던 것이 1970년에는 1.32\$로 5배가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약 2.70\$로 10배가 引上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體力이 10배나 더 강해진 것도 아니고 10배나 더 장시간 동안 노동을 한 것도 아니며 그것은 오직 우수한 道具와 機械的 動力을 충분히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네번째로 社會組織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앞에서 概觀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諸般 條件下에서 知性的 삶의 秀越性을 성취하여 國家社會의 발전과 나아가 人類의 文化 暢達에 기여하자면 韓國人의 天賦의인 才能을 개발시키는 教育, 특히 大學教育의 秀越性을 구현시키는 방법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思料된다.

4. 韓國 大學教育의 國際的 比較

우선 韓國 大學教育의 秀越性 수준을 평가해 보고 그 改善策을 모색해 보려면 教育과 그 結果를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捷徑일 것이므로 뒤의 <표 2>와 같은 比較表를 작성해 보았다.

〈표 2〉 각국의 대학 연구 상황

구	분	(1) 학생 수 (10 ⁶ 명)	(2) 교수 수 (2.6×10 ⁴ 명)	(3) 교수 대 학생 비	(4) 연구원 (10 ³ 명)	(5) 과학기술 연구 예산 (4×10 ⁸ \$)	(6) 연구논문 점유율 (%)
한	국	1	1	34	41	1	0.06(1)
일	본	2	6	18	381	16	5.7 (95)
영	국	0.3	1.2	9	103	15	7.1 (118)
서	독	1.3	5	7	116	11	6.3 (105)
프	스	1		20	93	19	5.0 (83)
미	국	12	23	14	742	121	

자료 : (1), (2), (3) *Education in Korea, 1985~1986*, 文敎部.
 (4), (5), (6) 「科學技術年鑑」(1986), 科學技術處.

〈표 2〉의 첫째 줄은 韓國의 대학생 수 100 만 명을 1로 잡으면 美國의 12 배(1,200 만 명)를 제외한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와는 1~2 배에 불과하며 英國에 비하면 3 배나 더 많다. 1945 년 당시의 韓國 高等教育機關의 대학생 수와 1985 년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무려 154 배나 증가 하였다.

韓國 大學生의 量的 膨脹을 잘 나타낸 大前正臣의 글(「地圖에 없는 韓國」, 德問書店)을 인용 해 보자.

“韓國의 經濟企劃院이 韓國과 先進 諸國의 高卒의 大學 進學率을 비교한 統計가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高校에서 大學으로의 進學率은 33.9%(’84년), 日本 28.6%(’82년), 西獨 15.1%(’83년), 美國 85.3%(’82년) 등으로 美國에 이어서 세계 제 2 위이다. 또 人口 1,000 명당의 대학생 수는 각각 前記 年度에서 韓國 18.6 명, 日本 15.3 명, 西獨 14.8 명, 美國 33.6 명 등이다.

大學 進學率로 보든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大學生의 占有率로 보든지 간에 韓國은 틀림없이 美國 다음으로 세계 제 2 위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첫째로 量的 膨脹主義型의 大學校(韓國), 둘째로 小數精銳主義型의 大學校(英·獨·佛), 셋째로 量·質 同時追求型의 大學校(美國) 등 세 종류의 大學校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大學教授 수에 있어서는 세계 제 2 위로 과다한 대학생 수에 비해 세계에서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過少한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韓國의 大學敎育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이 된다. 〈표 2〉 둘째 줄의

교수 수의 난을 보면 이와 같은 事實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韓國의 대학 교수 수(大學校와 大學) 26,000 명(’85년)을 1로 잡으면 日本은 6 배이다. 英國은 학생 수가 韓國의 1/3 임에도 불구하고 1.25 배나 되고 있으며, 西獨은 5 배이다. 美國은 대학 교수 수가 무려 60 만 명이나 되어서 23 배나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要路 당국의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수 1인당 대학생 수의 비율을 보면 韓國의 그것은 무려 34 라는 막대한 수자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이 비율의 수자가 20(70), 29(80), 36(85)(專門大學까지 포함)과 같이 해가 거듭함에 따라 증가 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鼓舞的인 사실은 文敎部(*Education in Korea, 1985~1986*)에서는 2001년까지 이 수자를 19.7÷20으로 減少시킬 예정이라는 것이다. 서울大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이미 20(1987년 서울大學校 發展計劃書)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타 未達校도 國立大와 같은 制度的·財政的 支援만 있으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外國의 경우를 살펴 보면 日本 18, 英國 9, 西獨 7이며 美國은 大學校가 3,000 여 개나 있고 대학생 수 1,200 만 명, 교수 수가 60 만 명이나 되므로 20 정도가 되고 있다. 美國 大學의 特性은 다양한 階層的 構造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優劣의 차이도 격심하지만 그 중 가장 優秀한 大學校의 그것은 3~4 정도(Harvard 및 Columbia大)가 되는 곳도 있다.

당연한 歸結이겠지만 교수 대 학생 수의 比率

이 많으면 많을수록 適當 교수 담당 시간 수가 증가하게 되니 자연히 講義 內容이 불충실해질 뿐만 아니라 敎授의 또하나의 중요한 責任인 研究 수행에도 障礙 요인이 되어서 敎育과 研究의 質的 向上을 기하기는 곤란하게 될 것이다.

특히 國·公立大學의 수는 23개교인데 비해 아무런 財政的 支援을 받지 못하고 있는 78개교나 되는 私立大學이 향후 15년이란 짧은 기간내에 30~40 정도의 교수 대 학생 수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研究員 항목을 보면 韓國은 41,000명인데 비해서 先進國의 그것은 英·獨·佛이 약 10만 명, 日本이 약 40만 명, 그리고 美國이 74만 명으로 日本과 美國의 그 수는 韓國의 10~20배나 되어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科學技術處에서는 2001년에 약 15만 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어 자못 기대해 볼 만하다. 科學技術의 발전을 위한 豫算 항목에서 韓國의 4억 \$을 1로 잡을 때 先進國의 그것은 두 자리 내지는 세 자리 수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科學技術處에서 發行한 「2000년대를 향한 科學技術發展 長期計劃」 1987~2001년에서 보면 2001년의 科學技術 투자를 GNP 대비로 최소한 3.1% 이상으로 확대시킨다고 하였으니 자못 기대가 크다.

끝으로 敎育 수준의 評價와 學問的 秀越性的 指標가 되는 研究 論文 수의 국제적 비교와 국제적으로 저명한 學術誌에 게재된 占有率을 보면, 韓國의 0.06%를 1로 볼 때 선진국의 그것은 거의 100배 정도나 많아서 매우 低調한 狀態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實情인 것은 敎育의 量的 膨脹만을 기하다 보니 敎育의 質的 向上의 결여에서 온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概觀해 본 바와 같이 장차 高級人力 자원을 개발하는 敎育課程인 學部에서의 基礎敎育의 철저한 內實을 기해야 할 것은 물론이러니와 大學院敎育의 수준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머지 않은 장래인 15년 후에 韓國에서는 일대 文化的 轉換期를 맞이하게 될 21세기초까지

그 많은 수의 교수 후보생과 연구 요원의 막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大學校의 大學院의 학생 定員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同 敎授數의 확장은 물론 人類文化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獨創的인 尖端科學技術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용 시설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財政的 支援이 결실히 요망되는 바이다.

5. 才能開發型 모델 大學

끝으로 21세기의 未來社會에 대비한 바람직한 大學의 모델과 그 大學에서 미래의 역군인 大學生들의 어떤 才能을 開發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잠시 考察해 보기로 하자.

마침 美國의 저명한 敎育哲學者이며 「敎育의 秀越性的 成就」(*Achieving Educational Excellence*)의 저자인 아스틴(A.W. Astin)은 그 책속에서 매우 흥미 있는 두 가지의 大學 모델과 開發되어야 할 몇 가지 才能에 대해서 提示한 바 있어 여기에 筆者의 私見을 첨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는 두 가지의 大學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첫째는 産業生産型 모델(industrial production model; IPM) 大學이고, 둘째는 才能開發型 모델(talent development model; TDM) 大學이다.

前者는 産業生産型이기 때문에 生産性보다는 收益性에서 오는 利潤의 추구가 우선 순위에 있어 제1위일 것이므로 다소 品質은 낮다 하더라도 粗製濫造해서 대량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벨런스 슈트에서 이윤만이 플러스가 되면 목적은 달성되는 반면에 또 다른 형은 品質管理가 잘 된 優良 제품을 소량만 제조해서 판매한 결과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할 때 IPM으로서는 利潤을 많이 획득한 쪽이 우수한 형일 것이다.

그러나 TDM은 學生의 潛在的 才能을 입학 전에 비해서 졸업 후에는 質的으로 현저하게 向上시켜 배출하는 型의 大學이다.

그리고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앞에서 분류한 세 종류의 大學이 이제 제시된 세 종류의 大學 모델과 다소 類似하다는 것을 聯想시켜 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TDM 型 모델 大學에서는 學生의 專門分野(人

文, 社會, 自然) 여하문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才能을 開發해서 졸업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10가지의 才能은 아스틴이 제시한 것에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價値中心의 文化傳統에서 崇尚의 대상이 되었던 '선비'와 物質中心의 傳統下에서 自然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연구원'이 지나야 할 才能을 덧붙여서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大學教育 內容에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心情에서 薦擧해 보았다.

- ① 言語(母國語와 몇 가지의 外國語)와 意思疎通의 才能(verbal communication skill ; reading, writing, speaking ; typing)
- ② 量的 計測의 技能(quantitative skill)
- ③ 컴퓨터 사용 능력(computer literacy)
- ④ 實質的 知識(substantial knowledge)
- ⑤ 理性과 推理力(rationality)
- ⑥ 知的 包容力(intellectual tolerance)
- ⑦ 審美的 感覺(aesthetic sensitivity)
- ⑧ 創意力(creativity)
- ⑨ 批判的 思考力과 認識力(critical thinking and awareness)
- ⑩ 專攻分野 專攻知識의 通達(knowledge of specialized subject matter student major field of study)

첫째로 言語란 意思疎通에 필요한 道具이므로 장차 國際化 社會에 적응하려면 母國語 이외에 國際語인 英語에는 통달되어야 하며 최소한 동·서양의 중요한 言語 1개씩에는 충분한 조예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數量的인 計測의 기능인 數學은 분석 종합하여 論理的이고 體系的인 思考를 할 수 있게 하며 事物을 精密하게 數量的으로 취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道具이므로 數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理工系 學生은 그것에 精通한 段階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며 人文系 學生들도 이에 대한 상당한 造詣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工業化와 情報化時代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사용해서 필요한 각종 有用한 情報를 貯藏, 抽出, 解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필수적으로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로 韓國을 위시한 동양과 서양의 여러 文化傳統의 발전 과정에 관한 文化史的인 이해와 획득된 知識은 현재를 觀照하고 미래를 展觀하는 데 중요한 實質的인 지식이 될 것이다.

다섯째로 베이컨(F. Bacon)이 말하듯이 客觀的인 科學的 思考를 하자면 偶像에 사르잡히지 아니 하고 偏見과 先入主見에서 탈피하여 냉철한 理性으로 想像과 推理를 할 수 있는 思考 패턴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어떠한 思想이라도 두터워하거나 排斥하지 아니 하고 哲學과 信念을 가지고 柔軟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知的 包容力은 知的 發展에 필요한 것이다.

일곱째로 아름다움에 感動하고, 또 그것을 追求하려는 審美的 感覺은 곧 眞과 善을 추구하여 구현시켜 보려는 感性和 一脈相通하므로 그것은 우리의 知性的 삶을 보다 즐겁고 潤澤하며 또한 아름답게 해주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고 또 개발되어야 할 감각인 것이다.

여덟째로 어느 분야에서 既存 知識에 통달한 후 問題意識을 가지고 不徹晝夜 장시간에 걸친 熟考 후에 게슈탈트(Gestalt) 心理學에서 말하는 無意識의 意識化 과정에서 빈게블과 같이 번뜩이는 獨創的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知識을 創造해 낼 수 있는 創意力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教育도 종전의 注入暗記式 教育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개인에게 潛在된 創意力의 啓發과 開發에 치중된 教育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로 事實에 立脚해서 實證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批判的인 思考力과 認識力만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思考能力이므로 이 비판적 인식력 양성의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열번째로 각자의 專攻分野에 精通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 分野의 正統 學說에 대해서는 자유로 驅使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방면의 패러다임을 파괴하여 獨創的인 新學說의 創造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專攻分野에서 새로운 知識의 創造를 할 수 있는 學問的 基礎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6. 結 論

이상과 같은 10 가지의 才能을 大學 在學 시절에 충분히 開發시킨다면 일단 才能開發型 모델 大學의 목표는 達成될 것이다.

다음에 大學教授는 맡은 바 教育, 學生善導, 研究와 社會奉仕의 네 가지 責任을 완수하면 될 것으로 보나 해당 大學當局에서는 그들의 責任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適當 강의를 부담 시간의 輕減이라든가 또 研究用 器資材 설치에 대한 財政的 支援과 같은 環境과 與件 조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大學運營 當局者는 각기 大學의 特色이 다른 立校精神의 구현과 教育 百年大計를 감안한 未來 指向的인 教育哲學的 視點을 가지고 韓國 大學의 學問的 秀越性의 수준을 國際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大學教育 短期 및 長期發展計劃을 작성하여 이에 입각한 教育 계획의 실천과 평가에 萬全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

大學 領域 외의 일반 企業體나 產業體에서는 마치 프랑스의 기업체에서 그랑제콜大學의 졸업생을 僱傭할 때에는 大學教育 과정에서 투입 지출되었던 財政的 經費 일체를 해당 대학 당국에 報償한 후에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라도 같이 大學에서 받은 恩澤에 보답한다는 뜻과 또 장래

에 高級 人材의 供給 요청에 부응하는 뜻에서 大卒 高級 人材의 善用으로 획득된 利潤의 일부는 해당 高等教育機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大學에서는 知識의 創造와 社會奉仕를 위해서 한편 企業體에서는 창조된 지식의 응용을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하여 產學 協同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產學間의 활발한 交流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高等教育 발전에 관련된 해당 政府當局에서는 科學技術立國을 國是로 하는 教育 百年大計를 구현하고 大學教育 발전을 위해서 國·公立大學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大學의 75%나 되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私立大學에 대해 財政的으로 보다 많은 投資를 하여 教育과 研究를 담당할 高級人力 양성에 不均衡과 蹉跎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원래 高等教育機關이란 그 나라의 文化的 傳統과 社會的 要請에 의해서 설립된 일종의 社會的 機關(social institution)이므로 그 기관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여된 政府, 財團, 經營 行政家, 教授, 學生, 職員 등 모든 구성 요원이 각자의 責任을 완수한다면 ‘大學의 秀越性의 成就’는 안 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大學人으로서 우리들은 ‘知性的 삶의 秀越性’을 즐기면서 살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